

■ 그림 여행



**아르장퇴유의 가을**  
(Autumn Effect at Argenteu c. 1873)

클로드 모네 (Claude Monet 1840 - 1926)  
(캔버스에 유화 74.5 x 55 cm 코틀드 미술관 소장)

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. 11월이 되었는데도 더운 날이 계속될 때가 많아 늦가을이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. 단풍을 보려면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볼 수 있을 뿐이다.

클로드 모네의 풍경화를 보면 항상 경탄하게 된다. 단순한 색채와 붓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그런

이미지를 연출해 냈는지 경이롭다. 여기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강가의 풍경을 보자. 파리의 세느 강변이다. 저 멀리 아르장퇴유 마을이 보이고 강물이 흘러간다. 파란 가을 하늘이 비치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이 양쪽으로 그려져 있다. 단풍이 든 나무들의 그림자가 강물 위에 거울처럼 드리워져 있다. 가을은 하늘, 강, 사람이 사는 마을에까지 깊이 찾아왔다.

현대인의 눈에 이 한 장의 풍경화는 그저 또 하나의 인상과 그림으로 보이겠지만 당시 19세기 사람들의 눈에는 시각적 충격이었다고 전해진다. 조각난 붓질로 여러가지 색깔을 조합해 하나의 온전한 풍경을 생성해 냈기 때문이다. 사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저 색깔이 입혀진 붓 자국으로 보일 뿐이다.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그림을 볼 때 비로소 선명한 풍경이 떠오른다.

한 장의 그림에 담겨진 화창한 가을의 풍경. 강물에 흘러가는 구름과 나무들의 모습.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이 화폭에 담겨 있다.

가을이 가면 이제 겨울이 오고 또 한 해가 지나간다. 우리의 눈동자는 그 흐름의 순간들을 포착한다. 그 한순간의 인상을 그려낸 모네의 그림을 보며 이제 가을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. 이제 흘러가면 영원히 오지 않는 계절. 잡을 수 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기에 소중한 아름답다.

《김동백》

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재료상 중 가장 큰

**Brother's**  
**청소재료상**  
Janitorial Supplies



**도매**  
**최저가격**



**무료배송**

가정용 청소기구 재료에서부터  
큰 빌딩 청소 각종 기구,  
재료까지 완벽하게 구비!

각종 청소기계 수리 전문!  
최신 청소기계 재료 다량 확보

각종 새로 개발된 청소약품  
화장지 / 각종 종이 / 타일 / 대리석  
카펫 샴프 기계 / 왁스 기계  
최신형 장비 일절 구비

Open : Mon-Fri 9am-6pm / Sat 10am-4pm

**(562) 920-9090**  
**(562) 920-9595**

Fax. 562-920-9596

16211 Bellflower Blvd. Bellflower, CA 90706



Kye's Microblading

**카이 반영구화장**

*Grand Opening Special*

눈썹시술 ~~\$350~~ **\$280**

- 3D 자연눈썹
- 4D 자연눈썹
- 아이라인
- 남자눈썹
- 입술 틴트
- 매력점
- 탈모커버
- 속눈썹 리프팅
- 브티, 바디타투



**909-706-7299**

Kyes.studio Kye's Microblading

7700 Orangethorpe Ave., #3, Buena Park CA 90621 (뷰티박스 내)